

'돌아버리겠네'

박소영

예술의 한계와 기본에 대한 질문에서 최근 개인전의 주제는 '반복하다' 와 '덩어리'이다.

안전과 생명의 상징색인 '초록'과 무거운 '짐'을 조합한 것은 한 사람의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고민에 대한 과정이며 결과물이다.

우화적인 제목인 '돌아버리겠네'라는 작업은 조형의 가장기본인 형태와 질감을 고려하여 작업되었으며, 본인이 원하는 순수한 형태를 얻기까지 긴 시간 석고를 바르고 갈아내는 일을 반복한다. 이 작업을 하면서 노동이 형태를 만들고 형태가 미술을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덩어리작업은 나일 수도, 너일 수도, 또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세상에는 돌아버릴 일이 너무도 많다.

또 하나의 덩어리 작업은 '하얀 수석'시리즈 작업이다.

과거 여관이었던 허름한 공간에 앉아있는 '하얀 수석'시리즈 작업은 많은 지나갔던 익명의 사람들의 체취를 상쇄시켜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화이트 큐브로 지칭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의 하얀 벽 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공간의 역사를 환기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몇 년간 지속 되고 있는 '껍질' 작업은 단단하지 않고 약하며, 작업의 비닐표면을 통해 보여 지고, 고정되어지지 않고 유동적이다. 또한 필름위에 인쇄된 나뭇잎은 세월이 흐르면 미세하게 변색되거나 색이 탈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필름 위에 인쇄된 이 이야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영원불멸 같은 형태로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우화 같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끊임없이 붙인다는 반복행위는 나의 작가적 태도를 의미한다.

공간과 작업의 의미에 대한 생각해본다.

보안여관이라는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2-1 번지 공간은 나에게서 신선하게 다가왔다.

백색공간인 갤러리와 미술관이 제도의 틀이라면, 곰팡이 내 나는 시멘트가 노출된 거친 '통의동 보안여관'은 그 것들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

이 공간에 시간의 흐름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에, 다만 밀도 있고 매혹적이며, 그 공간과 어울리는 작업들로 나의 이야기를 더하려 한다.

그것까지가 이전 작업들과의 변별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술가들이 행하는 미술을 만들기 위한 행위 중에 습관적이던, 관념적이던, 전략적이던 수많은 행위들을 반복 한다. 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아득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몇 년간 노동의 결과인 내 자신의 바벨탑은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눈치 채지 못하게 서서히, 천천히,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영원불멸 같은 형태로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우화 같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있는 것 일까?

두텁고 육중한 시멘트 빌딩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을까?

다만 우리는 그럴 것 이라고 믿을 뿐이다.